

# 종합 연포장 가공공장으로의 발돋움

국제무대를 경쟁상대로 한 장기적 계획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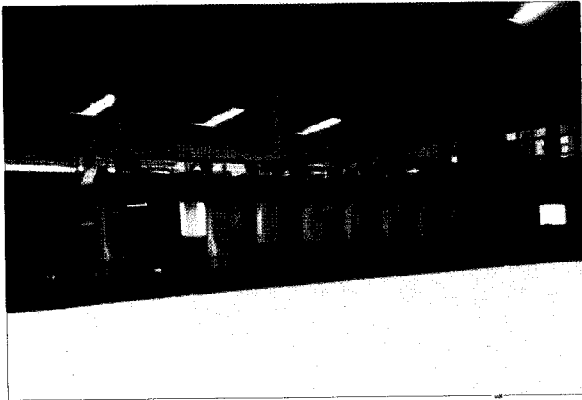
한국의 연포장산업은 60년대 플라스틱 필름이 생산된 것을 기점으로 70년대에 이르기까지 일반적인 Wet lamination, EXT lamination, Dry lamination 그라비아 인쇄가 연포장재의 가공기술의 발달을 가져왔다. 이에따라 수입일변도였던 기본 잉크, 점착제도 서서히 개발되기 시작했고 특수가공쪽은 70년도에서 80년도 사이에 활발한 토착기술이 개발되기 시작했다.

경기도 화성군에 위치한 남경화학공업 주식회사(대표 김선창)는 회사 상징 칼라인 푸른색 바탕에 입구에 걸린 '남경은 기술을 앞세웁니다' 라

는 글귀는 기술을 중시하는 기업임을 실감나게 했다.

포장사업부, 화학사업부, 기계사업부, 3개사업부로 나뉘어 운영되어 완벽한 생산체제를 갖추고 있는 남경화학은 1972년 담배포장의 새로운 시대를 연 금박지를 사용한 청자 담배포장의 금색잉크생산을 기점으로, 내열·내유·내한성을 요구하는 ICE CONE인쇄잉크 등 특수잉크를 제조하면서 영등포 가리봉동에 자리를 잡고 뜻을 펼치기 시작했다.

1975년에는 현재 자동차용 안전 유리라미네이팅 필름과 같은 라미네이팅 시트개발, 각종 테이프용 고무



▲ 남경화학의 8도 그라비아 인쇄기

계 접착제 및 핫멜트 접착제들을 개발하여 현 화학 가공제품 판매의 기본골격을 쌓았으며 1977년도에는 스티커라벨 제조기, 코팅기, EXT그라비아 인쇄기, 왁스기등을 설비하여 연포장가공 기계를 본격적으로 일관생산체제로 고기능화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1979년에는 영등포 가리봉동에서 현 위치인 화성군 태안으로 이주하면서 더 범위를 확장시켜 합판용 테이프, 합판용 핫멜트 글루 및 은박벽지와 STICKER LABEL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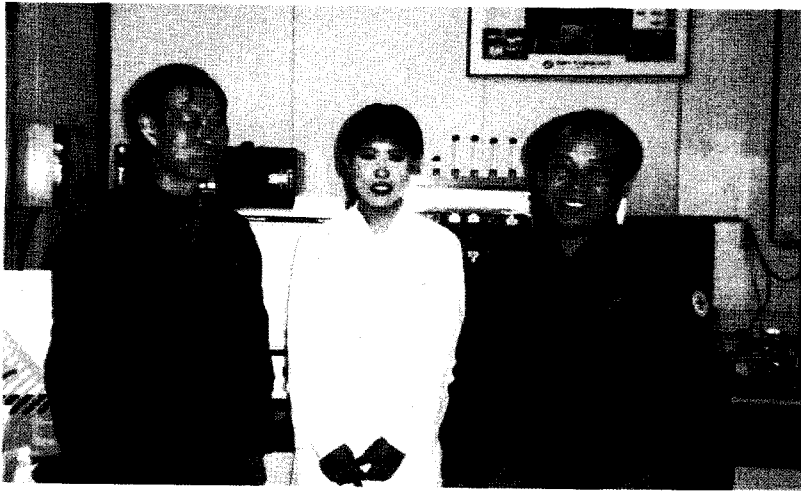
생산하여 특수 가공쪽에 박차를 가했다.

1982년에는 합판회사들의 인도네시아 진출에 따라 인도네시아에 합판용테이프, 합판용 핫멜트글루 제품수출은 물론 현지에 합판용 테이프 제조설비, 핫멜트 글루 제조설비, 은박합지 시설을 처녀수출하여 국산 원부재료의 공급과 동시에 남경기술인의 현지 기술지도 및 운영에 까지 이르게 되었다.

남경은 현지 기술인력, 가공원부재료의 수출을 일찍이 시작하여 현재까지 140여종의 기계설비를 동남아시아에 수출하였다. 이에따라 1985년에는 해외 기계설비를 수출하는 해외기계사업부를 별도로 운영수출을 전담케 하였다.

1987년도 당시 외교관계가 없었던 중국에 200만불이 넘는 연마지, 연마포, 연마대를 제조할 수 있는 샌드페이퍼 플레이트 Turn Key Base로 설치, 가동 하였으며 이를 시발로하여 중국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1988년 국내 최초 2 Layer CPP 기계를 제작하여 가동하였으며 이어서 1989년에는 일축연신 PP, PE기계의 국산화로 자체 원단생산을 하게 되었다. 그동안 꾸준히 추진하여 오던 해외 진출의 일환으로 중국천진에 천진남경연마공업유한공사를 1992년 합작설립하여 현지화와 아울러 흑자경영으로 이루어졌으며 이에 나아가서 합작법인을 단독 투자법인



▲ 남경화학 포장시험실 이천우실장, 김경리씨, 도계현파장(왼쪽부터)

으로 전환하였다.

1994년에는 5000평에 이르는 공장 용지를 확보, 건평 1000여평에 이르는 건축물과 설비를 이달말까지 완공

하여 생산의 배기는 물론 시장을 넓히는데 전력 질주하고 있고 중국의 경제는 성장을 거듭하고 있어 목표하고 있는 계획을 달성하는데 무리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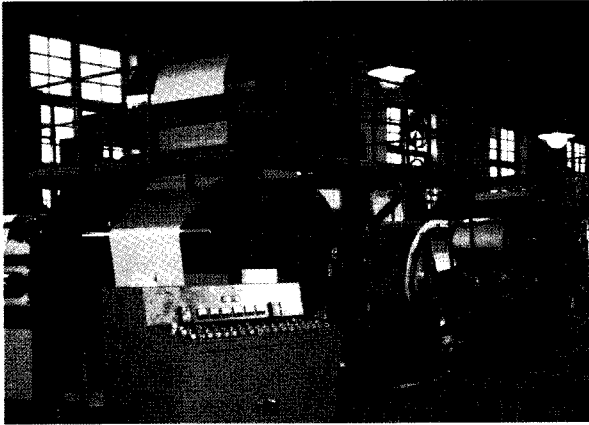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 이외에도 93년에 설립한 인도네시아 Tear Tape 생산공장의 기술지도는 물론 국산 원부재료의 공급으로 탄탄한 기반을 잡았으며 1995년에는 연포장가공설비로서 그라비아 7도, 6도 인쇄기와 텐덤 압출기를 증설 설치하기로 합의하여 준비중에 있으며 이로인해 6월이후에는 명실공히 종합 연포장 가공공장으로 발돋움하게 될 것이다.

현재 남경화학의 주요생산품은 MIPP FILM을 활용한 비스킷, 껌 포장지, 라면스프 포장지 개봉테이프와 환경보호를 위한 재활용 가능성 내오지·릴리스지를 비롯해 아기 기저귀 및 생리대용 각종 핫멜트 접

(그림1) 조직 및 운영 현황

<b>포장 사업부</b>	제과포장, 음료포장, 라면포장, 릴리스지 왁스지, 개봉테이프, CPP Film, MOPP MOPZ Film
<b>화학 사업부</b>	Flexo 잉크, 그라비아 잉크, 코팅제, 접착제, 점착제, 폴리에스텔 수지, 알키드수지
<b>기계 사업부</b>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모든 종류의 테이프 생산 설비 및 기술(Gummed Tape, 합판테이프, 면테이프, 절기절연 PVE 테이프, 양면테이프, 열테이프, 스티카라벨, 폴리에스텔 테이프, 테어케이프)</li> <li>2) 연포장 가공기 및 제조기술 제품특성에 따른 그라비아 인쇄기·Flexo 인쇄기, dry, Wet, Wax, Ext, 라미네이팅기 각종 코팅기 슬리터·엠보싱·검품기·재생기·편칭기·썰링기 등</li> <li>3) Film 제조기 · 3 Layer CPP·알축연신 Mopp기·Blow 필립기</li> <li>4) 접착제 및 점착제 합성설비 및 제조기술 · Hot Melt 점착제, 점착제 수성아크릴 점착제, 유성아크릴 점착제 · 각종 고무 점착제 제조기·알키드 폴리에스테르, 폴리에테르합성제 · 잉크 제조설비</li> <li>5) 연마포, 연마지, 연마벨크, 링 제조설비</li> <li>6) 기타 포장산업용 기계설비</li> </ol>
<b>해외 사업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포장제, 접착제, 코팅제, 잉크류 수출업무</li> <li>· 타사제품 Al-Foil, 지류, Plastic Film 등의 해외합작선 및 User에게 수출.</li> <li>· 합작선의 상품 국내 및 해외판매</li> <li>· 기계설비 및 부품 수출입.</li> <li>· 원부재료 수출입</li> </ul>
<b>해외 거래처</b>	일본, 대만, 태국, 인도네시아, 중국, 파키스탄, 말레이시아, 홍콩, 캐나다, 브라질, 미국, 독일, 프랑스, 스웨덴.



▲ 천진 남경연마 공업 유한공사 공장내부 전경



▲ 남경화학이 인도네시아 시장을 겨냥하고 직접 현지에서 설립한 MENAMCO전경

착제, 핫멜트 글루를 이용한 음료·카라멜·웨하스 포장지, 알키드 합성수지 및 그라비아 후렉소잉크 등이다.

천진남경연마유한공사는 각종 연마지, 연마포, 연마벨트, 자동차용 재료를 생산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에서는 개봉데이프 일체와 라면스프 포장재, 천연과일 스넵포장재를 생산하고 있다.

남경화학은 지금의 위치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적인 발전을 꾀하기 위한 장기적인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더욱이 앞으로 신형가공기계 설비의 해외판매 및 각사의 중고가공기계 설비 역수출을 계획하고 있는가하면 환경보호를 위한 단결 포장재료 개발을 준비중이다. 또한 식품포장용 저취 포장재료 제조법 개발, 해외 포장 원부재료의 수입판매, 해외투자기업의 중점 육성 및 신규투자도 적극 늘릴 계획이다.

오전내 내린비로 맑아진 주위정경 탓인지 전원에 묻힌 남경은 연포장

업계의 깨끗한 기업이미지를 나타내 는듯 했다. 20여년간 일구어진 터전 위에 앞으로도 독보적인 기술보유를 기업의 생명으로 여기고 세계속의

남경을 창조해 낼 것이다.

이선하 기자

[표1] 설비

남경화학공업(주)					
1	그라비아 인쇄기 8도	5대	2	드라이라미기	2대
3	Tandem EXT 및 EXT	각 1대	4	Wax Coating기	3대
5	Wet Coating 및 Lamination기	1대	6	Coating기	1대
7	Sliter기 및 Rewiader기	8대	8	Micro Sliter기	1대
9	Costing 연신 Film기	1대	10	CPP Layer	1대
11	인크 제조설비	45sets	12	HOT MELT 접착제 제조설비	15sets
13	합성기	3sets	14	시험연구설비 gas분석기 외 다종	
15	건물 1800평, 수전설비 2,000KWA				
천진남경 연마유한공사					
1	60m dryer평 Coater	1대	2	Sliter	1대
3	Rotary Cutter	4대	4	Flexo NK 제조설비	1set
5	연마석 선별기	5sets	6	접착제 혼합기	2sets
7	각종 시험기구	12sets			
Menamco 인도네시아					
1	Dry	1대	2	그라비아 4인쇄기	1대
3	Wax coating기	1대	5	발전설비	2sets
6	각종시험기구	8sets			

[표2] 인원현황

	남경화학공업(주)	천진남경 연마유한공사	MENAMCO
사무직	19명	5명	4명
기술직	13명	6명	4명
생산직	52명	40명	30명
중국연수생	6명		
인원	90명	51명	38명

# 연포장 기술 정착시킨 포장 1세대

## 시대가 요구하는 포장재 개발에 주력 할 터

서울공업고등학교와 성균관대학교 화학과를 졸업한 김선창 사장은 육군기술연구소 포장연구실 근무를 통해 포장업계와 인연을 맺었다.

국내 최초의 포장연구실이 있던 육군 기술연구소에서 삼진화학(당시 삼진알미늄)으로 자리를 옮기고 10여년간 근무하다 1957년에 비로소 남경화학을 설립하였다.

32년동안 연포장과 더불어 외길을 걸어온 김 사장은 국내에 포장을 정착시킨 1세대며 그동안 업계를 선도해온 장본인이기도 하다.

연포장이 취약했던 시절 초창기 멤버로서 모든 연포장관련 업계는 물론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 한국포장협회, 한국포장기술인협회, 한국포장기술연구소 등 포장관련 단체들과 인연을 맺고 포장산업 발전을 위해 늘 관심을 기울여 왔으며 현재는 한국포장기술인협회의 회장직을 맡고 있기도 하다.

“업계 선후배들의 꾸준한 노력과 세계시장의 급작스런 변화로 해외수출의 초창기를 맞아 합성수지와 더불어 필름, 호일, 종이 등의 물량이 많이 늘어 났으나 원재료 값의 상승으로 수지타산이 어려운 형편입니다.

이러한 소재를 원재료로한 인쇄·가공업계는 원료수지의 기인상과 필름, 호일, 종이등의 인상및 유기용제의 인상등을 모두 부담하면서도 가격을 인상 시키지 못하거나 그 인상폭이 너무 미비하여 업계를 파산의 위기로 치닫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협회의 역할이 더욱 절실했습니다. 우선 동종업계가 손익 분기점을 찾아 재료비에 몇%를 받아야 될것인가를 평균치 또는 최저치를 기준으로 정하여 사용처와 교섭할수 있는 공동 대처방안을 마련하고 서로 같은 입장이 되어 원가계산을 종류별로 계산하는 비상대책이 요구됩니다.”라고 업계의 어려운 상황과 함께 대책을 제시하는 김 사장은 협회내에 분과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므로 자료를 수집하여 최소 95년도 가격을 정리하고 표준원가 계산을 한 후 사용자와 공동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연포장 기술수준이 국제경쟁에 결코 뒤지지 않는다고 자부하고 있는 김 사장은 포장의 패턴은 시대적이어서 환경오염 문제를 전제하지 않은 시점에서는 각종 플라스틱 필름류, 호일류, 제지 및 잉크, 그라비아 인쇄기술, 제판술, 가공인쇄기등이 선



▲ 남경화학 김선창 사장

진국에 이미 수출되었으며 그 품질을 인정받아 왔다고 한다. 또한 지난해 냄새문제를 야기시킨 제품들도 이미 선진국에 수출되어 3mg이하라는 주문을 만족시켰으며 따라서 시대의 변천에 따라 포장재의 패턴을 바꾸어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피력했다.

해외진출에 특히 관심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고 있는 김 사장은 한국의 포장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동남아는 물론 미국, 캐나다, 남미, 아프리카 등지까지 꾸준히 소재에서부터 가공기계 및 부자재의 수출과 정보교환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중국과 인도네시아 현지에는 공장을 설립하여 시장공략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그동안은 후진국을 상대로 단기적인 진출을 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는데 앞으로는 판로가 있는 곳이면 어디를 막론하고 진출을 꾀할 계획이며 특히 95년에는 일본시장과 미국 및 유럽 진출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이 그의 욕심이다.

최고의 제품을 최적의 가격에 판매한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제품을 가능하게 만들겠다는 것이 그의 경영철학이다. 연구하고 노력하는 자세로 계속 발전되고 있는 소재를 새로운 가공법으로 처리하여 시대성과 사용성에 맞는 제품 개발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을 맺는 김사장은 「포장정보」지가 업계를 대변하는 매체로써 자리잡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